

사회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A Study on the Roles of Libraries for Societal Development

박 인 응 (Inn-Wung Park)**

〈 목 차 〉

- | | |
|------------------|---------------|
| I. 연구의 목적 | 2. 분배의 발전단계 |
| II. 사회발전의 단계별 가치 | 3. 자아실현의 발전단계 |
| III. 사회발전과 도서관 | IV. 결론 |
| 1. 경제발전의 단계 |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이나 사서직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인식론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논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발전을 단계별로 경제발전의 단계, 분배의 단계, 자아실현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발전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발전의 가치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규명해 봄으로써 도서관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s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e theory of social cognition which librarianship have an effect on societal development. For these purpose, the stages of societal development is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of economic growth, information sharing and self-actualization of individual and objectives of developments are investigated by stages. At last, the theory of social cognition which librarianship contribute to societal development are demonstrated with searching the roles of libraries corresponding to the objectives of development stages.

* 이 논문은 1995년도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 연구의 목적

진작부터 도서관은 사회적 기관이나 그 실행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회의 변동이나 발전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이 변화를 겪게 될 것인데, 반면에 도서관과 사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일찍부터 지식사회학에서는 지식의 피사회구속성이 인정되어 오는 가운데 세라를 위시한 일부 도서관학자들이 사회에 대한 지식의 충격 즉 사회에 대한 지식의 영향에 관심을 보여왔다. 사회인식론이 도서관학에 있어 그 지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서는 개인 및 사회에 있어서 인식과정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봉사로 이행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회적 책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도서관학의 참다운 지적 기반이 된다.¹⁾ 이 논리를 사회인식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사서는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만 사회적 책무의 이행이 가능하며 또한 그것이 도서관학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인식론적 기초 위에서 도서관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서관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사서가 될 사람에게 도서관의 규범과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한 실천적 원리와 지침을 체계화하는 학문으로 발전되어 온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이론적 기초를 쌓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발전을 경제발전단계, 분배의 발전단계, 자아실현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발전단계별로 발전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II. 사회발전의 단계별 가치

사람이 발전을 추구하는 까닭은 그것이 바람직한 가치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발전이란 '삶의 질'을 드높이고 정교하게 하고자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삶의 질은 물질과 정신, 몸과

1) J. H. 세라, 『도서관학의 사회학적 기반』, 윤영 역, 구미무역, 1984, 97쪽.

마음의 두 측면에서 고르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표상한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질적으로 훌륭한 삶을 누릴 기회를 공정하게 지니고 삶을 선택할 자유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의 기회'는 하나의 가치목표가 된다.

삶의 질과 기회를 드높이는 까닭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사람들의 삶을 더 낮게 하자는 것이다. 이 때 개체로서의 인간은 개인마다 타고난 잠재능력과 성향을 가진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이 바람직한 까닭은 각자 제 나름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완성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발전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가치의 논리는 김경동²⁾의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논리를 기초로 단계별 발전가치를 설정하였다. 즉 삶의 부문에서 물질의 가치를 있게 하는 경제발전을 일차적 발전단계, 삶의 기회의 부문에서 분배의 가치를 이차적 발전단계, 자아실현의 가치를 마지막 발전단계로 본다. 앞으로의 연구진행은 경제발전단계, 분배의 단계, 자아실현의 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Ⅲ. 사회발전과 도서관

1. 경제발전의 단계

1) 발전의 개념

근대화란 한 가지 측면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경제적인 것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의 목표를 경제적 성장으로 보고, 경제가 성장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근면과 성실이 부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낡고 비효율적인 관습이나 사고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소비를 절약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둘째,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보급과 습득이다. 그러므로써 생산성 증대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과 지식의 습득은 지속적인 자기학습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셋째, 낡고 불합리하여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낡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 김경동, 『한국사회변동론』, 나남, 1993, 76-80쪽.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나 특히 개발 중에 있는 국가는 경제성장을 제일의 국가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2) 교육과 경제발전

교육과 경제발전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장 오래된 주장은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요청되는 개인의 기술 및 태도의 습득에 있어서 학교교육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인간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게 되고 더욱 생산적, 효율적, 활동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즉 발전적인 태도는 개인이 교육을 통하여 변형되는 과정에서 함양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교육은 다음과 같은 기능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³⁾

- (1)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숙련도와 효율성 및 작업지식이 향상된다.
- (2) 노동력의 이동성이 증대하고 분업화를 촉진하며 취업률을 향상시킨다.
- (3) 과학기술 및 지식을 증대시켜 발명, 발견과 신속한 응용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진보를 촉진한다.
- (4) 기업가의 능력이 향상되어 경영의 합리화와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 (5) 경제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력을 높이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회적 제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교육의 경제적 효과는 대체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바로 인적자원이론에 기초한다.

슐츠(T. W. Schultz)의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교육받은 인간은 더욱 생산적이며, 교육은 주민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개선과 그것에 의한 효율성 제고가 경제적 성장의 요건인데 그것은 교육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이다.⁴⁾ 인적자본이론가들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교육이 가지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형의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적 지원 즉 기술과 지식의 동원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노동 집약적이거나 저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교육인력이 많이 요구되는 반면 선진기술을 요하는 발전과정에서는 기술과목의 전공자를 위시하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인력의 증가가 요청될 것이다.

인적 자원의 향상은 지식과 기술의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나 가치관을 길러야 한다. 이때 교육은 근대화

3) 김영봉·N. F. 맥긴,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한국개발연구원, 1984, 113-114쪽.

4) I. 웨저린드·L. J. 사하, 『교육과 사회발전』, 윤정일·강무섭 역, 대영문화사, 1993, 69-70쪽.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식구조의 형성에 기여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사회적 제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⁵⁾

교육에는 언제나 매우 다양한 변인들이 관련되고 이 변인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이 사회경제발전의 증대와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의 증대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며,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사회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라면, 교육은 발전을 위한 동인이나 기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서도 경제발전에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60년대 경제개발 착수 당시에 잘 교육된 인력이 있었기에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서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축적되어 있던 교육인력은 1962년 이후 발생한 급격한 경제성장의 기초형성에 기여하였다.⁶⁾ 이 기간동안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은 기능공, 기술공, 기술자, 경영·관리자와 기업가의 수요에 대하여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교육발전에 의해 이와 같은 교육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학교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이 왕왕 실패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많은 수의 교육받은 인력이 실업자로 남게 되며, 학교교육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로의 대량 이주현상을 낳게 된다. 다수의 사람들을 소외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맞게 됨으로써 낮은 생산성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교육으로부터 소외되었거나 학교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계속적 개발과 성장을 위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교육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경제성장 없이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은 그 자체 속에서 경제성장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증대, 직업적 창의력과 직업윤리의식의 신장, 시민들의 경제적 자립정신의 함양, 나아가 국민전체의 경제적 발전의욕을 높이는데 교육의 공헌은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와 적합한 기술을 개발시켜 그들의 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과 가정이 안정과 복지, 그리고 행복과 번영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구조를 향상시켜 나갈 수

5) 위의 책, 73-77쪽.

6) 김영봉·N. F. 맥긴, 앞의 책, 125쪽.

있게 된다. 이처럼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3)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역할

앞부분에서 경제발전에 학교교육이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는 도서관과 경제발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과 학교의 관계성 즉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학교교육은 실업, 비문해(非文解),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한데, 사회교육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교육은 개인적 발달의 수단으로서, 교육기회 상실자를 위한 보충교육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람 및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연장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사회교육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 사회교육은 개인학습자에 의한 자율적이고 자기 지시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서, 교육체제나 조직이 아닌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자신들의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한다. 둘째, 사회교육은 각 개인들이 사회에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능력과 지식 및 실제적인 기술을 갖추게 해준다.

이처럼 사회교육은 인적자원개발의 기제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회교육정책이 사회발전 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면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으로써 사회경제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한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 2조 4항과 제 20조 5항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증진 즉 평생교육의 주체 또는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교육기관임을 선언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을 위한 자기교육기관이며, 지식수준이 낮고 사회적 혜택과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의 자기교육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이다. 국민 개개인이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여 자기교육을 부단히 계속하여 새로운 지식을 쌓고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며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노력을 계속할 때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초적 원동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은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시청각교재의 개발 및 보급, 독서교육을 실시한다. 정보지식사회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정보의 이용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절실하다.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이용해서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사고력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열린교육의 실천이나 이 실천을 위한 협동교수프로그램의 개발

과 추진에는 도서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탐구학습활동이 요구되고 더욱 적극적인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에의 참여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7) 이상의 교육현실에서 우리는 학교도서관의 활동이 교육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2. 분배의 발전단계

1) 발전의 개념

인간의 기본욕구는 세 차원으로 구분된다.8) 첫번째는 최고의 물질적 욕구차원, 두번째는 기술적 기본욕구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의 확장을 통하여 공동체의식을 조성하는 단계, 세번째는 사회·민주적 기본욕구 차원으로서 평등이 강조되며 재화와 권력의 분배가 요구되는 단계를 말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일차적인 인간의 기본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규정된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보다는 성장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평등과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분배의 발전개념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부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정보접근에의 평등화가 발전의 가치로 보고, 이 문제에 관한 도서관의 역할을 알아보겠다.

2) 정보 불평등

정보사회라 할 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모습은 이른바 '누구나가 정보에 편리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사회'라는 것이다. 정보를 소유함으로 부를 장악하게 되고 결국에는 힘을 가지게 되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현상들도 나타난다. 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기초가 되므로 정보화 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의 골이 깊어지는 사회,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이 결국 정보화에서도 앞서 가는 사회, '가난하기 때문에 정보화에 늦고, 결국 생존능력이 떨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7) 한운옥, "열린교육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2권(1998), 233-256쪽.

8) 홍기선, "사회발전을 위한 매스컴의 역할", 『한국사회변동과 매스컴』, 나남, 1988, 41-42쪽에서 재인용.

즉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불평등이란 사회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사회가 야기하는 정보불평등 현상은 바로 정보화가 자본주의적 틀 안에서 진행되기에 파생되는 문제이다. 즉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시장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자본주의 체제하의 정보화도 시장원리, 특히 이윤추구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정보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적 영역이 시장원리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정보와 정보기술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산되고 유통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란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용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시장기계에 의존한 정보화는 유용한 정보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한 이는 유용한 정보로의 접근을 제한하게 하여 정보불균형을 수반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상층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풍부하고 유용성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하위로 내려올수록 그 사람은 점점 열등한 종류의 정보만 접하게 되어 정보빈자와 정보부자의 구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는 정보 불평등문제는 보다 심각해진다. 디지털 정보로의 접근에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 전송망의 확보는 필수적이기에 첨단 미디어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디지털 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디지털 정보세계, 인터넷의 세계는 영원히 동경해야만 할 세계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문제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정보의 상품화는 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정보는 곧 돈이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 논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정보가 상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해서도 부정해서도 안된다. 정보가 상품화된다는 사실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정보의 상품화로 야기되는 부정적 현상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3) 정보의 공적 접근과 공공도서관

정보격차로 야기되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누구나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그것을 획득하여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인간적인 정보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의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적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 정보 부문에서 공공 영역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인간의 지식과 정보란 모름지기 인류와 역사를 위해 축적된 사회적 자원으로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의 소유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원으로서 누구에게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수준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성별의 차이, 언어의 차이, 신체적 장애, 지역적 차이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정보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지식과 정보의 이러한 공공적 원리를 사회적으로 실천해온 기관이 바로 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은 정보공간의 보편적 접근이 원칙적이며 공공적으로 성취되는 곳으로 지식과 정보의 공유성을 실현하는 사회의 공공영역으로 존재한다.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대와 직업과 인종과 종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문헌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부터 탄생한다.⁹⁾ 정보란 전유하거나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은 형성되었고 발전해왔다.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공공도서관이 가진 이러한 원리와 철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사회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활용하였다. 19세기 미국에서의 공공도서관은 교육적으로 혜택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재분배하는 기관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회적 평등'이란 개념이 초창기 공공도서관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영국에서 도서관은 노동자 계급에게 사회의 부유층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설을 제공해줌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¹⁰⁾

정보시대로 이행될수록 정보와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지식과 정보의 공유성을 역사적으로 실현해온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결국 정보시대, 정보의 상품화 현상으로 초래되는 정보접근의 소외와 불평등 문제는 공공도서관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된다. 바로 공공도서관은 정보사회에서 만민에게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케하는 공공적 정보 접근점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정보에 대한 공적이며 평등한 접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 도서관의 사회적 책무 -

도서관인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9) Arthur W. Hafner & Jennifer Sterling-Folker, "Democratic ideal and the American Public Library", 『Democracy and the Public Library: Essay on Fundamental Issues』, Greenwood Press, 1993, p.13.

10) Bob Usherwood, 『정보사회와 공공도서관』, 오동근 역, 한국도서관협회, 1996, 30-31쪽.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1권 제1호)

- 가. 도서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나. 도서관인은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고 그 노력을 지원한다.
- 다.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 라. 도서관인은 성숙된 지식사회를 열어 가는 선도자가 된다.¹¹⁾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시대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은 인간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보접근의 평등과 자유를 확보하는 정보사회의 선도자라는 사회적 책무를 가진다. 특히 지식정보시대라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정보접근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은 보다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공공도서관계는 지식정보시대라는 우리 사회의 변동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보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보다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특히 정보의 상품화되어 가는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불균형의 문제에 착안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공공도서관이 바로 지식과 정보에 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며, 정보접근에 있어서 평등화를 실현하는 정보복지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정보시대라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정보불평등 문제를 공공도서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도 공공도서관의 확보는 정보사회가 가져올 정보불평등이란 역기능을 해소하고, 만민에게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케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현을 확보하는 인간다운 정보사회를 열어 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핵심적 사항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발판으로 정보의 공공적 접근을 보장하고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응으로 공공도서관이란 사회적 장치를 확보하며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3. 자아실현의 발전단계

1) 발전의 개념

분배사회에서는 개인들이 정보에의 접근과 이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하는데 발전의 목표를 두었지만 자아실현의 발전단계에서는 접근이나 이용기회의 공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가치있게 영위하는가 하는 것이 발전의 주개념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내지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높이 평가받는 정보·지식

11) 『도서관인 윤리선언』 중에서

사회이다. 그 정보·지식사회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²⁾

- (1) 정보사회와 함께 도래하는 지식사회는 단순 사무기능은 전산망 등의 자동화 기계에 의해 처리되고 그 대신 정보를 검색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의 지식을 변화시켜 새지식으로 만드는 일을 주로 하게 된다.
- (2) 지식사회를 주도하는 계층은 지식 근로자이거나 준지식근로자가 될 것이다. 화이트칼라도 생산직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식창출작업에 간여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 (3) 지식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에 알맞은 여가선용을 바랄 것이다. 새로운 정보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으며 각종 문화기회에 참여하여 문화향수능력을 키우는 등 여가선용에 관심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 (4) 지식사회에서는 대량생산체제나 획일적 서비스체제는 맞춤 서비스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고객의 개성과 취향에 알맞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능력이 크게 요구 될 것이다.
- (5) 지식의 창출은 인간중심적이어야 한다. 지식사회는 인간의 내면자원인 가치관, 신념, 창의성, 자율성, 도덕성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이들 내면자원은 인문과학에 속하는 것으로, 인문과학은 문학, 예술, 체육, 역사 등과 결합하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 (6) 지식의 생명주기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기 때문에 지식근로자는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지식근로자가 지식창출이나 창출된 지식을 기계, 일, 지식에 적용하는 과정은 계속적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습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을 많이 설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교육과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사회구조로의 변화에는 여기에 맞는 사회목표나 가치체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정보·지식사회로의 이행에도 새로운 사회목표와 가치체계의 출현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보·지식사회에서는 어떠한 가치가 발전개념으로 자리잡게 될까? 그것은 지식사회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창출능력과 학습능력의 함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지식창출과 학습 및 그것들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2) 지식창출과 도서관

현재 전세계에서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잠재된 상태로 넘쳐 나고 있다. 이 정보의 대부분은 생산되어 유통되고 소비되는 일회용의 쓰레기일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의 넘침이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차별의 정보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의도적인 산출과 가공

12) 한인호, 『지식사회로 가는 길』, 청하, 1998, 48-118쪽.

에 의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현실화에서는 현실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조직이나 사회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을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보란 단편화되고 표피화된 지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자기 내면화와 자기중첩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섭취해도 정신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보가 확대되고 유용하게 되려면 자기 외적 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닌 정보는 정신의 성장에 유익한 영양분이 되도록 스스로 보완하고 넓어지는 함축적 능력을 가지는 지식으로 태어나야 한다.¹³⁾ 정보·지식시대에는 단편적 정보를 잔뜩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유효한 문제의식을 설정하고, 정보와 지식을 발견해 내거나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방법론을 세우고, 이것을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정보·지식문명에서는 일정한 정보나 지식을 창출하고 구성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그 문화에 있는가 라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¹⁴⁾

따라서 많은 양의 정보나 단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이 스스로 확대될 수 있는 함축적 능력을 가진 지식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는 바로 정보의 재구성고 지식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보의 재생산과 지식의 창출에서 도서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실제 정보의 재생산의 기술은 창의력과 사고력에 있으며¹⁵⁾, 사고력, 창조력, 상상력, 통찰력과 같은 능력의 습득은 바로 책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¹⁶⁾ 따라서 정보의 망망대해에서 그 정보를 나의 지식으로 재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읽기가 강조되어야 한다.

창의성 현상에 대해 많이 알려진 기제들로서는 사고과정, 지능, 머리짜내기, 유추적 사고 등이 있고 이것들은 창의성 발휘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력은 독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독서는 창의력 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상상력을 키워 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양서선정기준이며,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도서는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 개발은 책 속의 진실을 얻기 위한 적극적 독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내용의 이해를 위한 적극적 독서행위가 이루어 질 때 책 속에 담긴 내용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¹⁷⁾

사고력 또한 독서를 통하여 향상될 수 있다. 사고는 앎과 삶을 연결하여 앎을 이용한 삶이

13) 김상환, "알팍한 소비사회의 지식·사유의 잠재력 회복 절실", 《조선일보》, 1994. 10. 17. 5면

14) 박성현·김찬호, 『위기와 전략-정보기술의 충격앞에서의 문화전략』, 대화출판사, 1995, 19-29쪽.

15) 이중환,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근본적 차이", 《공공도서관의 혁명이 필요하다-공공도서관의 위기상황, 어떻게 풀 것인가》,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1998, 21쪽.

16) 이중환, "책으로 열자, 새로운 천년", 《독서진흥을 위한 출판과 도서관의 협력체제 구축》, '99 서울 국제도서관 기념세미나, 한국도서관협회, 1999. 9-10쪽.

17) 박인웅, "한국의 문화발전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도서관학논집》제21집(199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16-8쪽.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인간심성이다. 독서는 아동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방법이다. 지식의 증가는 책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독서는 간접경험을 통해 상상을 가져다주어 흥미를 유발한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능력이 저자의 일차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더 큰 상상력으로 확대되는 것이 독서의 중요한 효용이다.¹⁸⁾

이처럼 창조력, 사고력 등의 가치가 중요시되어야 할 시점에서 기술우위의 발전이 강조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인문학이 쇠퇴하고 있다. 지식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거나, 자신의 존재중심에 생기를 회복하는 고전들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이야기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¹⁹⁾ 지식사회의 기반인 인간의 내적 자원인 창의력, 상상력, 도덕성 등은 인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도 인문학을 도외시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적 자원은 독서를 통해 발전되고 성숙되는 것이기에 인문학의 쇠퇴는 책읽기, 즉 학습의 기본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도덕성과 협동심이 없으면 여러 사람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통합과 학문의 통합으로 새로운 지식창출에 필요한 팀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지식의 활용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생활의 편리성이나 경제성 및 부의 축적은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질서있고 이웃의 따뜻함이 있는 마음의 안락함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의 관서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나 소화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조직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닌 이웃의 도움이었다. 사후대응에서 복구국면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연금, 원조물자, 자원봉사활동 등에 의해 실현된 증여경제였다. 이 증여경제는 행정에 의한 계획이나 시장경제보다도 신속하고 세세한 점까지 피해자의 생활을 지탱하고 복구를 지원하는 원동력이 되었다.²⁰⁾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사람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문화는 무엇일까? 그것은 책읽기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내면자원인 창의력, 상상력, 협동심, 질서 등을 통한 인간적인 지식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는 책이 중심에 서는 시대로서 독서진흥이 도서관봉사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기관은 지역의 종합문화센터인 공공도서관밖에 없다. 국민들의 독서생활화는 그 나라 문화의 척도가 되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국력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선진국 국민을 향한 문화를 향상시켜 주는 최선의 문화시설이 된다. 특히 우리 나라 국민들의 독서 활

18) 박인웅, 앞의 글, 318-9쪽.

19) 이중한, “책으로 열자, 새로운 천년”, 위의 글, 6-7쪽.

20) 이케가미 준 등, 『문화경제학』, 황현탁 역, 나남, 1999, 61-62쪽.

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독서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보다 중심적이고 활발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민독서 증진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²¹⁾

이러한 의도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독서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도 독서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흥미 유발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독서정보자료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다.²²⁾

3) 학습과 도서관

지식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일들이 학습에 의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화이트칼라도 학습을 통하여 지식근로자로 변신하지 않으면 단순노무직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근로자는 지식사회에 알맞은 능력을 소유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것을 일에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²³⁾ 또한 많은 사람들은 틀에 박힌 직장인으로서보다는 고객의 개성과 정서에 맞는 맞춤형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²⁴⁾

이와 같이 정보·지식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지식근로자로서 정보를 검색 가공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그것을 일에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올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인 자기 학습을 통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적 상황 및 요구에 대하여 가장 잘 해답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도서관이다. 그럼 이와 관련한 도서관의 역할을 알아보자.

먼저 공공성 높은 정보와 자료는 여전히 도서관을 통하여 입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하에 정보제공기능을 도서관의 핵심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도서관을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정보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료를 대폭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정보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²⁵⁾

첫째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지방행정 및 의회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는 전통적 일반 자료들의 대출이다.

셋째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한다.

21) 박광무, “국가의 도서관 발전 정책 방향”, 《공공도서관 위기상황, 어떻게 풀 것인가》, 서울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민대론회,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1998, 14쪽.

22)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1998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정책국 도서관박물관과, 1998, 14쪽.

23) 하인호, 앞의 책, 92-98쪽.

24) 위의 책, 82-83쪽.

25) 한상완 등, “21세기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 및 모델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권 2호, 225쪽.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전통적 역할 이외에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바로 역사·지리자료실 등 전문주제자료실을 확장 운영하여 더욱 세분되고 깊이 있는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자료 검색과 도서관 자료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봉사실을 개선하고 있으며, 정보전자매체 및 영상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첨단시설과 설비를 갖춘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²⁶⁾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도 21세기 지식사회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제공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기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현재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지식정보기능은 지식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식근로자 또는 준지식근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창출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서관의 교육·학습지원 기능을 살펴보자.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교육이라면 컴퓨터 교육부터 생각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언어를 다루는 방법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을까에 대한 인간의 느낌과 창조적 상상력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의사소통에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문화적 생산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절실한 과제가 된다.²⁷⁾ 따라서 교육에 정보기술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하면 멀티 미디어화할 것인가, 인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보기술 충격 앞에 놓인 우리 문화의 대응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교육지원 기능은 도서관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대표적 기능이다.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학교교육 지원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 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학교와 각종 교육시설의 중심에 위치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²⁸⁾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교육기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보화 지식사회에서는 그 기능이 보다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²⁹⁾ 그 예로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이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교육 방향으로 첫째로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정보탐색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아동 및 학생에게 전자적 교육 및 학습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사회에서 맞춤형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의 정서에 상응하는 방식의 도서관역

26)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앞의 글, 79쪽.

27) 박성현·김찬호, 앞의 글, 53-4쪽.

28) 박광무, 위의 글, 14쪽.

29) 한상완 등, 앞의 글, 226-7쪽.

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도서관에서 기대되는 역할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봉사를 생각할 수 있다.³⁰⁾ 먼저 이용자와 사서간에 더욱 철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봉사내용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쌍방향성 장서개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번째로는 사서들이 상담능력을 익혀서 더욱 철저하게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알맞은 봉사를 제공하는 개성화된 도서관봉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도서관이나 사서직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인식론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논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발전을 단계별로 경제발전의 단계, 분배의 발전단계, 자아실현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발전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발전의 가치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규명해 봄으로써 도서관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발전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학교교육만으로는 사회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또는 그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적 기제가 필요하다. 사회교육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교육은 의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에 평생동안 계속하는 자기교육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교육은 인적자원개발을 촉진시켜 주는 기제, 즉 다시 말하자면 의미 있고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동인이 된다.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의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기관이다. 도서관은 국민 개개인이 부단히 자기학습을 계속하여 새로운 지식을 쌓고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며 긍정적 태도와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교육기관이다.

30) 한윤옥, "지식혁명시대의 학교도서관의 발전전략." 《2000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 66-7쪽.

2. 정보의 평등배분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민주적이며 평등한 사회로의 발전에는 모든 사람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정보화에 따라 유용한 정보로의 접근을 제한하게 하여 정보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그런 불균형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간의 지식과 정보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축적된 사회적 자원으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 및 국가의 소유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원으로서 누구에게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이러한 공공적 원리를 사회적으로 실천해온 기관이 공공도서관이며,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다.

3. 자아실현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1) 지식창출과 도서관

단편화되어 있는 많은 양의 정보는 검색, 가공되어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검색, 가공, 창출되는 과정은 창의력, 사고력 등 인간의 내면자원에 의해 촉진되며, 이 내면자원은 책읽기에 의해 증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도서관과 학습

지식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근로자로서 정보를 검색하고, 가공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것을 일에 적용하여 부가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수행되며, 도서관이 학습을 지원하는 가장 적합한 기관임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